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소련 여성 참전자들의 경험과 기억 -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의 증언집을 중심으로

한정숙*

국문요약

이 글은 알렉시예비치의 구술사 증언집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를 중심으로 2차대전 시기 소련의 여성 참전자들의 전쟁 경험과 기억을 살폈다. 소련에서는 100만 명 이상의 여성이 대독 전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는 이들 가운데 일부를 인터뷰한 후 증언을 독백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 글은 이 책을 소설이 아니라 구술사 자료로 보고 분석하였다. 젊은 소련 여성들은 독일의 침입을 받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전했으나 전쟁에 대해 아무런 사전 지식을 가지지 못했다. 스탈린 군대는 이들의 입대를 허용했으면서도 숙소, 의복, 생리적 특징 등의 면에서 여성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방어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용감하게 싸우면서도 여성적 감수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였다. 남성에 비해 훨씬 따뜻하고 인간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서 위험한 상황이 아니면 적에게도 온정을 베풀었다. 그러나 종전 후 그들은 사회로부터 참전자로서 인정과 보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여성참전자라는 이유로 냉대받고 침묵을 강요당하였다. 이들의 기억은 묻혀 있다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얼굴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전쟁과 여성, 여성병사, 구술사, 2차 세계대전, 소련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cliohan@snu.ac.kr

I. 들어가는 말

전쟁과 여성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 익숙한 전통적 관념 속 이미지들을 들어 보자.

우선 여성은 전쟁의 피해자,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존재로 여겨져 왔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흔히 국가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모국의 땅은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려져 왔으며,¹⁾ 특히 서양에서는 민족적 정체성을 여성의 형상으로 묘사해 왔다. 이에 따라 전쟁의 불길로 뒤덮인 땅은 고통받는 어머니 대지의 모습으로 상징화되곤 하였다. 그런데 상징에서뿐 아니라 실제로도 전쟁 상황에서는 여성의 몸 자체가 전투장이 되곤 하였다. 전시에 자행되는 여성에 대한 집단 성폭행(위안부, 성노예), 젠더사이드는 여성이 겪는 극한의 고통을 보여준다. 전사로서의 남자와 고통 속에 울부짖는 여자의 모습은 전통적인 관념 속에서 전쟁의 성별 이미지를 대표한다.

둘째, 여성과 전쟁을 관련시키는 또 하나의 전형적 이미지는 아들을 전쟁에 보내는 어머니의 모습이다. 전통적인 국가의 관점에서 어머니가 찬양받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아들을 길러서 조국에 바친다는 것이다. 어머니들은 이 역할을 감내해야 하는데 아들을 바치는 어머니가 의연하고 씩씩할수록 그녀에 대한 찬양은 드높아진다. 스파르타의 어머니는 전쟁에 나가는 아들을 보고 “방패를 들고 오든지 방패 위에 누워 오라”고 말하였고, 아들이 전사하면 조국을 방어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것에 대해 기뻐하였다고 하여, 남성적 시민 도덕의 수립을 원하던 루소 같은 논객에게서 극찬을 받기도 하였다(루소, 5권).

셋째, 여성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고통을 받는 만큼 평화의 수호자로서의 이미지도 가진다. 기원전 5세기 후반 펠로폰네소스 전쟁 시기를 배경으로 한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 「뤼시스트라테」에서 뤼시스트라테를 비롯한 아테네의 여성시민들과 스파르타, 테베 등 교전국의 여성 시민들이 힘을 합쳐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수립한다. 또한 이 희극작가의 다른 작품인 「평화」에서도 유폐되어 있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오는 평화는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다.

1) 단어의 성별구분이 철저한 서양 언어에서는 이러한 사고를 좀 더 뚜렷이 찾아볼 수 있다. 서양 사회의 관념 체계에서 민족과 민족의 영토를 상징하는 신화적 인물은 이탈리아, 브리타니아, 마리아느, 게르마니아 등 여성적 존재이다.

‘전쟁은 남성적, 평화는 여성적’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는 고래로 이어지면서 전형성을 획득하고 있다. 남성의 특권은 대내외적으로 폭력을 독점하는데 있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 남자의 일로 여겨졌다. 또한 조국의 대지와 조국의 정체성은 여성으로 상징되었으므로 조국을 지키는 것은 여성의 순결을 지키는 것과 동일시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전쟁에 참여하는 여성은 예외적인 존재였다. 전선에 있는 여성의 가장 대표적인 표상은 전상자를 돌보는 간호자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이 이미지를 고착시킨 인물로 여겨진다. 브레히트의 「억척어멈과 그의 자식들」(*Mutter Courage und Ihre Kinder*, 1941)의 주인공 ‘억척어멈’에서 보이듯 이동하는 병력을 따라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여자들도 있지만 이는 부차적인 존재라고 하겠다.

그런데 이처럼 여성은 전장에 있더라도 전투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되어 왔지만 전투하는 여성도 존재하였다. 전투하는 여성 민족인 아마조네스에 관한 이야기는 신화 속에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 이야기가 실재한 것이라고 믿은 역사가들은 자신들의 역사서에 이들의 이야기를 담기도 하였다. 역사적 실존 인물 속에서도 잔 다르크처럼 전사로서의 여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여성의 로망인 면도 있다. 남장을 하거나 혹은 여성의 차림 그대로 전쟁에 참여하는 여성의 모습을 묘사한 문학작품은 동서양에서 공통되게 찾아볼 수 있다. 영국의 작가 마거릿 캐번디쉬는 「전장의 종」(*Bell in Campo*, 1662)이라는 희곡에서 여자들로만 이루어진 전투부대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다. 이 부대에 소속된 여자들은 남장을 한 것이 아니라 여성의 옷차림을 그대로 한 채, 남자들이 패전으로 잃어버린 요새를 되찾는 험격한 무공을 세운다. 조선 후기에 쓰인 고전소설인 「박씨부인전」에서는 박씨 부인이 시녀 계화로 하여금 무기를 휘둘러 적군을 물리치게 하고 나라를 구한다. 더 나아가 역시 조선 후기에 쓰인 고전소설로 명나라를 배경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홍계월전」에서는 여주인공 홍계월이 평국이라는 남성의 이름을 하고 남장을 한 채 군사적으로 맹활약을 하여 황제와 나라를 구한다. 이 소설들을 여성이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성의 무공이라는 꿈이 성리학적 조선 사회에서도 표현될 수 있었음을 작품은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는 아주 드문 것이기는 하지만, 여성의 전쟁 참여에 관한 언설이 전근대 사회의 상상력 지평 속에서도 완전히 부재했던 것은 결코 아님

을 알 수 있다.

더욱이 20세기에 러시아/소련 여성들은 공상 속에서가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 전투병으로 전쟁에 참여하였다. 사실 혁명 이전 러시아에서도 여성의 전쟁 참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은 결코 아니었다. 특히 여성 통치자는 군대를 통솔하는 지도자로서의 자기 존재도 보여주어야 하였다. 연대기 기록을 따르면 옛 키예프 루스 시절인 10세기의 섭정 올가 공비(公妃)는 남편의 복수를 하고 지긋지긋한 칭혼자를 물리치기 위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출정하였다. 1762년 러시아 제국의 예카테리나 황후는 지지자들을 시켜 자기 남편인 황제를 몰아내는 쿠데타를 감행했으며, 그 직후 군대를 이끌고 궁정으로 돌아와 예카테리나 2세 여제로 즉위하였다. 통치자는 아니되 귀족 신분에서 속했던 나테즈다 두로바(1783-1866)는 나폴레옹 전쟁 시기에 남장을 하고 십년 가까이 기병장교로 복무하였다.²⁾

그러나 이러한 것은 모두 예외적이고 개별적인 경우였다. 일부 여성들은 전쟁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왔지만 거의 모든 남성은 여성의 전쟁 부적격성, 전투적 무능력성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 1차 대전 시기에 러시아 여성들은 상당한 규모로 전투에 참여하였으며 “스스로를 동원하였다”(Stockdale 2004, 80). 스스로를 동원했다 함은, 여성의 입대가 허용되지 않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1914년 7월부터 1917년 5월까지 군 복무를 한 여성이 1,000명에 달했기 때문이다. 군 복무를 원하는 여자들의 집요한 요청으로 여자들의 비공식 군 복무가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2월 혁명 이후에는 여자들만의 전투부대가 형성되기까지 하였다. 그 가운데 보취 카료바의 주도로 창설된 여성 전투부대인 제1 러시아 여성 결사대대는 러시아 내외에 이름을 떨쳤다. 10월 혁명 당시에는 바로 이 여성 결사대대가 볼셰비키의 공격에 맞서 겨울궁전을 방어하는 역할을 자임하였다가 패배한 후 해산되기도 하였다.³⁾

2차 대전에 이르면 이미 많은 교전국에서 여성을 병력으로 활용하였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는 즉위 이전인 1945년 3월, 공주 신분으로 여자 국방보충군(Auxiliary Territorial Service: ATS)에 소속되어 육군에서 근무하

2) 두로바의 삶과 활동에 대해 살펴 본 한국 연구자의 글로는 이시연 2009이 있다.

3) 1차 대전 시기 러시아 여성 참전군인들의 경험에 대해 참고가 될 수 있는 국내 연구자의 연구로는 최지은 2015이 있다.

였다. 당시는 2차 대전 막바지였는데 그녀는 트럭 정비사와 운전자로 일했다(Wild 2015). 2차 대전 시기에는 주요 교전국에서 정규 여군의 역할을 찾아볼 수 있다(류한수 2006).

그런데 소련은 교전국 가운데서도 여성 병력이 가장 대규모로 참전했을 뿐 아니라 여자들이 폭격기 조종사로 백병전 참가자로, 가장 위험도가 높은 전투에 참여하였다(Pennington 2010, 779). 스탈린 헌법은 성별 구분 없이 “보편적 병역 의무”가 법이라고 규정하였고(1936년 헌법 132조) 조국의 방어는 “모든 소련 시민의 신성한 의무”라고 규정하였다(1936년 헌법 133조). 또한 여성은 1918년에 도입된 보편 군사훈련 행정(Всеровух) 규정에 따라 18세에서 40세까지의 소련 시민이 받는 연 8주간의 군사훈련에 자원하여 참여할 수 있었다(Pennington 2010, 779). 그럼에도 백만 명이나 되는 여성의 참전은 예상을 훨씬 넘을 정도로 규모가 큰 것이었고 여성 참전자들의 전투 의지는 강렬하였다.

이제는 이들의 역사에 대해 적지 않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소련 여성 참전군인들을 전통적인 군사사의 관점에서 다루지 않고, ‘감정의 역사’라는 차원에서 내면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경험을 살핀 책이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Светлана Алексиевич)의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У войны не женское лицо, 초판 1985)이다.⁴⁾ 알렉시예비치는 여성 참전자 수백 명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발언 내용을 잘라 독백 형식으로 재배치하였으며 여기에 자신의 해설과 제목을 달고 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그녀가 기록한 것은 ‘감정에 대한 기억의 역사’ 혹은 ‘기억된 감정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기억의 역사가 역사학에서 적지 않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중에서도 ‘감정이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또한 역사학에서 제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다. 소련 여자들은 어떤 동기에서 입대하였던가, 그들은 전선에서 여성으로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으며, 전쟁이 끝난 후 어떠한 대우를 받았다고 여기는가? 또한 궁극적으로 이

4) ‘감정의 역사’는 뤼시앵 페브르, 테오도르 젤딘과 같은 역사가들에 의해 제시된 이래 조금씩 그 적용영역을 확대해 왔다(Hitzer 2011). 알렉시예비치는 엄밀한 의미의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스스로 이 역사학 용어를 가져와 자기가 집필하는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감정들의 역사’(история чувств)라고 규정하고 있다(알렉시예비치 2015, 25, 90). 필자는 러시아어본인 Алексиевич 2019와 영역본인 Alexievich 2017도 참고하였다.

여성들의 경험과 기억은 전쟁의 참상, 비인간성이라는 면에서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이 글은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를 중심으로 이들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적인 군사사 연구에서처럼 이들의 전투와 전쟁 수행 과정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알렉시예비치의 저작의 결을 따라가면서 여성 참전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어떻게 느끼고 기억하고 있는지, 이들의 경험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를 주로 살펴볼 것이다.

II. 알렉시예비치 증언집의 역사 자료로서의 성격에 대하여

소련 시절인 1948년에 벨라루스에서 태어나 소련 시민으로 자란 알렉시예비치는 언론인으로서 소련 사회의 가장 중대한 관심사와 운명을 천착해 왔고 러시아어로 글을 썼다. 소련의 수많은 시민을 상대로 행한 인터뷰를 추린 증언집들은 ‘유토피아의 목소리들’(голоса утопии: voices of utopia)로 총칭되면서⁵⁾ 러시아어권과 서방에서 이미 오랫동안 주목받아 왔고 그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후에는 국내에서도 관심이 고조되었다. 그녀의 책은 국내에서는 체르노빌 참사로 인한 피해자들의 증언을 담은 『체르노빌의 기도: 미래의 연대기』가 먼저 번역되었는데⁶⁾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는 그녀의 노벨 문학상 수상 발표에 조금 앞서 출판됨으로써 더 큰 대중성을 얻게 되었다.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에 대해서는 국내 러시아 문학 전공자들의 분석 논문이 여러 편 있는데 문학 전공자들은 특히 그녀의 저작들 속의 형식적, 장르적 특징과 문학성을 분석하는 데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심지은 2017; 양민중 2016; 윤영순 2016). 역사학 분야에서는 황동하와 기계형이 서평 혹은 소개의 의미로 이 책을 살펴보았고(기계형 2016; 황동하 2016), 류한수 또한 2차 대전 시기 전쟁 포스터를 분석한 그

5) 이 시리즈에는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최후의 증인들』(Последние свидетели, 1985), 『아연소년들』(Цинковые мальчики, 1989), 『체르노빌의 기도: 미래의 연대기』(Чернобыльская молитва: хроника будущего, 1997), 『세컨드핸드 시대』(Время секунд хэнд, 2013) 등이 포함된다.

6) 번역서 제목은 『체르노빌의 목소리: 미래의 연대기』로 약간 변형되었으나 원서의 의미는 살리고 있다고 보인다(알렉시예비치 2011).

의 논문에서 이 책을 부분적으로 인용하고 있다(류한수 2011, 71, 80, 84).

『체르노빌의 기도』의 한국어 번역본 제목이 『체르노빌의 목소리』라는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알렉시예비치의 책은 일차적으로 전쟁이나 재난, 기존체제의 해체와 같은 참사 및 재난의 당사자들, 특히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압박과 두려움 때문에 침묵해야만 했던 사람들이 침묵을 깨고 행하는 증언을 담고 있는 것이다. 알렉시예비치 자신은 자기 작품을 목소리 소설(роман голосов)이라고 칭하였고 다른 논자들도 이 용어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Латкина 2015: Шахноза 2022). 그래서 그녀의 저작을 소설이라고 칭하면서 작품을 분석하는 문학 전공자들이 많다.

그런데 이를 문자 그대로 소설로 여기는 태도는 당혹감을 불러일으킨다. 문학과 문학 이외 다른 분야의 글쓰기 사이의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논픽션과 픽션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까지 무시할 수는 없다. 알렉시예비치의 책은 편집과 취사선택, 운문, 해설이 가해졌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저널리스트의 인터뷰 녹취록을 풀어 엮은 책이기 때문이다. ‘목소리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저자가 자신의 글쓰기의 특징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선택한 특수한 용어다. 가장 적합한 분야를 말한다면 그녀의 책은 구술사 자료로서의 증언록이자 집단 회고록이라고 하겠다. 영어권 문헌들에서도 많은 경우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는 구술사로 소개되고 있다.⁷⁾ 구술사는 민중의 역사 기억을 녹취하여 문자화한 자료로서 국가 행위 중심의 공적 기록의 틈을 보완해 주는 귀중한 역사 자료이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체험, 일본군 위안부들의 체험은 구술사 채록을 통해 역사 속으로 들어온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알렉시예비치가 구술자들의 발언 내용을 “바꾸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아연소년들』과 관련하여 법정 시비가 붙었

7) 피비어와 볼혼스키의 영어 번역본은 *The Unwomanly Face of Women*이라는 제목 아래 *An Oral History of Women in World War II*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노비카우는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를 비롯한 알렉시예비치의 저작을 다큐멘터리 산문(documentary prose)으로 칭하고 알렉시예비치를 주로 구술사 분야에서 소련 및 탈소련 국가들의 중요한 정치 사회적 사건들에 대해 저술하고 있는 벨라루스 저자(an author from Belarus, who writes predominantly in the oral history genre and about significant political and social events in the Soviet Union and post-Soviet states)라고 칭하고 있다(Novikau 2017, 315).

을 때 그녀가 법정에서 인정한 것인데(Из стенограммы 1993) 여기서 개입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증언 내용을 바꿀 정도인가가 문제된다. 증언자 자신의 기억에도 착오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증언자의 기억 착오는 그 자체가 심리적 충격, 감각의 한계, 의도적 망각, 사건 당시로부터 시공간적으로 떨어진 것 등에서 빚어지는 비의도적 착오이며 당사자의 잘못된 기억 자체가 역사적 기억의 일부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와는 달리 구술사 기록자가 증언을 토대로 창작을 하거나 엄밀한 의미의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증언자의 이름까지 명기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들려주겠다고 하면서 증언자의 허락 없이 내용을 바꾸었다면 이는 기억의 의도적 왜곡에 해당하는 것이고, 증대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만일 증언자가 말하지 않은 내용을 알렉시예비치가 임의로 추가해 넣었다면 이는 수십 년 간의 침묵을 깨고 어렵사리 증언에 나선 증언자들의 신뢰를 깨버린 행위로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알렉시예비치가 바꾸었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를 알렉시예비치 자신에게 직접 하나하나 물어보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녀가 바꾸었다는 것은 기본적인 내용일까 아니면 내용의 배치일까. 그녀는 장절에 따라서는 해설을 전혀 첨가하지 않기도 하지만, 자신이 수동적 기록자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앞뒤로 긴 해설을 써넣기도 하였다. 해설 이외에 그녀가 행한 저자로서의 개입으로는 내용의 발췌, 생략 외에 감정을 강조하기 위한 문체의 수정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

알렉시예비치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다룬 『아연 소년들』 출판 후 고소당하여 법정에 선 적이 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그녀를 고소한 일부 증언자들은 알렉시예비치가 기록한 내용에는 자신들의 발언과 다른 점이 있다고 반발했다. 예를 들어서, 전사한 소령 플라티친의 어머니는 알렉시예비치가 어떤 사실들을 임의로 추가하기도 하고 증언자의 발언을 생략하기도 했으며 알렉시예비치 자신의 독자적인 결론을 끌어내기도 했다고 주장하면서 저자를 고소하였다. 다른 어머니는 자기가 전사한 아들에 대해 회고할 때 아들이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거나 전쟁에 나가는 것이 허무하다고 말했다고 회고한 적이 없는데 알렉시예비치의 책에는 그렇게 기록되었다고 주장했다. 부상을 입은 한 참전군인은 알렉시예비치가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기록한 이야기를 두고 자기 이야기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

발했다. 둘째, 고소자들은 그녀의 책이 전쟁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고 추악한 면만 보여주어 참전군인들을 모욕하고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항의하였다.⁸⁾ 자신의 책에 수록된 내용이 인터뷰 때의 발언과 다르다는 주장에 대한 알렉시예비치의 다음과 같은 답변은 이 문제에 대한 그녀의 입장을 잘 요약해 준다.

나를 법정으로 불러낸 사람들은 몇 년 전 그들이 했던 이야기를 부인합니다. 같은 말이고 같은 부호이지만 그들의 의식 속에서 암호 체계의 열쇠가 바뀌어 버렸고 그들은 이미 과거의 텍스트를 다르게 읽거나 대개는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자유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Из стенограммы 1993)

알렉시예비치를 고소한 증언자들은 인터뷰 당시에는 진솔한 마음으로 경험과 느낌을 털어놓았지만, 책의 출판 후 그들의 발언이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그들 자신의 행위에 대한 비난의 근거가 되자 스스로 발언을 철회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연소년들』에는 증언자들의 이름이 더 이상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도 알렉시예비치의 고충을 반영한다. 뿐만 아니라 알렉시예비치는 증언집의 수정증보판을 내면서 종전의 내용을 좀 더 극적(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비극적)으로 보이게 수정하기도 하고 한 사람의 인터뷰 내용을 다른 사람의 인터뷰와 합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 때문에 알렉시예비치 저작이 탐사 저널리즘 문헌이나 역사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는지 의문을 표하는 논자들도 있어 왔다.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의 프랑스어본(La guerre n'a pas un visage de femme) 번역자인 아케르망과 르마르샹은 이 책의 초판인 1985년본과 증보본인 2005년본을 대조하여 그 차이점들을 제시하였다. 타마라 스테파노브나 움냐기나 같은 증언자에 대한 알렉시예비치의 인물묘사가 달라졌다는 것, 2005년본에서는 안토니나 미로노브나 렌코프의 증언에서 초판에는 없던 비속어가 빈번하게 등장한다는 점 등이 대표적인 차이점이다(Ackerman et Lemarchand 2009, 35-38, 41). 또한 2005년본 속의 움냐기나의 인터뷰 내용 가운데는 베라 막시모브나 베레

8) 『아연소년들』을 둘러싼 재판과정에서의 논쟁 및 논란과 관련해서는 알렉시예비치 2017, 405-505에 자료가 첨부되어 있다.

스토바의 증언을 마무리하면서 알렉시예비치 자신이 써넣은 구절이 삽입되어 있다는 것도 지적되었다(Ackerman et Lemarchand 2009, 43). 이러한 점들을 지적하면서 아케르망과 르마르샹은 2005년본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는 비극적 차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큐멘터리적 성격을 감소시키는 문학적 특징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였고 역사자료로서의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Ackerman et Lemarchand 2009, 44, 45). 더 나아가 핑컴은 알렉시예비치가 자신이 진행한 인터뷰를 확정된 역사적 문서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치적 예술적 계획을 위한 재료’ 정도로 다룬다고 일축하면서, 예를 들어 『세컨드핸드 시대』 수정판에서는 서방 사회의 구미에 맞게끔 초판의 내용을 바꾸었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Pinkham 2016).

그러나 『전쟁은 여성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도 소련 시절 초판을 냈을 때는 검열당국의 비판에 여러 차례 봉착하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역시 ‘대조국전쟁’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고 여성 참전자들의 감정, 그들의 고통을 기록하였다는 이유 때문이었다.⁹⁾ 알렉시예비치는 검열을 우려하여 자기검열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2005년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책을 출판할 수 있게 되자 보관되어 있던 녹음테이프에서 누락되었던 내용을 찾아 보완해 넣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한 그 같은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출판되었지만 이 책은 증언 참여자들에게서 내용이 왜곡되었다는 항의를 불러일으킨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문, 편집 차원의 가필이나 보완은 몰라도 기본적인 내용에서 왜곡이 있거나 알렉시예비치 자신이 창작해 넣은 내용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일단 판단할 수 있다. 알렉시예비치는 전쟁의 역사가 아니라 감정의 역사를 쓴다고 스스로 공언하고 있고(알렉시예비치 2015, 25, 90) 실제로 증언록에서는 당사자들이 사건 당시에 느낀 감정이 미시사적으로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따라서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의 경우, 감정묘사에서 다소의 세부적 가감이 있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감정의 흐름이나 방향

9) 검열관은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의 출판을 불허하는 근거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정말 어렵게 승리를 쟁취했소. 그래서 당신은 영웅적인 사례들을 써야만 하는 거요. 그리고 그런 예는 수백 가지도 넘어요. 그런데도 당신의 전쟁의 추악한 면만 보여주고 있소. 냄새나는 속옷만 보여줬단 말이에요”(알렉시예비치 2015, 48).

자체, 사건들 자체에 대해서는 알렉시예비치가 변화를 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책은 집단 증언록, 구술사 자료로서 충분한 가치를 가진다고 보인다. 아케르망-르마르샹이나 핑컴의 연구를 검토한 후에도 많은 연구자가 이 저작은 집단적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고 여기거나 집단기억을 담고 있다고 파악한다(Roesen 2018, 107; Lenart-Cheng 2020). 이를 보더라도 이 자료가 구술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소련의 2차 대전 참전 여성들의 경험과 기억

1. 참전 동기

2차 대전 시기 소련에서는 젊다고 말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어린 소녀들이 너도나도 자원하여 전쟁에 참전하였다. 일선의 지휘관들은 소녀들의 부대 배치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병력으로 동원할 젊은 남자들이 부족했음에도 그러했다(알렉시예비치 2015, 101). 소녀들을 부하로 두어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당황스러워했고 소녀들을 전선이 아닌 다른 곳으로 내보내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소녀들은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전선으로 달려갔다. 8학년, 9학년, 10학년, 그러니까 한국의 학제로 바꾸어 말하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소녀들이 그러한 선택을 하였다.

이들의 참전에는 일단 강제성보다 자발성이 두드러진다. 학교에서 교장 선생이 이들에게 조국 수호가 공부보다 먼저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알렉시예비치 2015, 101) 이들은 부모, 특히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혹은 아버지의 독려를 받아 가면서 학교 친구, 마을 친구들과 손잡고 군인 열차를 타고 전선으로 갔다.

이들의 참전 동기는 대부분 조국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소련의 젊은 여성은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스스로 “잔 다르크가 된 자기 모습을 떠올렸고 “조국을 지킬 각오가 되어 있었고”(알렉시예비치 2015, 98), 그러한 존재가 되고자 하였다. 이들은 공적인 활동의 최대치라 할 “조국을 지키는 일”에 참여하면서 존재의 고양을 경험하였고 거의 신성과의 접

축의 순간에나 맞볼 법한 영혼의 격상을 느끼기까지 하였다.

독일군이 마을에 들어왔어…… 나는 어떻게 하면 놈들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
오로지 그 생각뿐이었어. 내가 장렬하게 목숨을 던지고 사람들이 나에 대한 책
을 쓰는 것을 상상하기도 했지. 내 이름이 영원히 남는 상상. 그게 내 꿈이었어.
(알렉시예비치 2015, 121쪽)

그때 우리 영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당신이 안다면! 그때의 우리 같은 사람
들은 아마 세상에 또 없을 거야, 두 번 다시는! 그렇게 순박하고 그렇게 진실한
사람들은. 그렇게 굳센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연대장이 깃발을 받아들고
명령을 내렸어. ‘전 대원 깃발 앞으로! 무릎 꿇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밀려
왔어. … 그리고 당신은 믿지 못하겠지만 그때 나는 그 감동으로 병이 치유됐
어. 온몸이 터질 것처럼 가슴이 벅차오르더니 병이 깨끗이 나아 버렸지. … 내
온 존재를 뒤흔든 그 강렬한 감정이 날 낮게 한 거야. (알렉시예비치 2015,
106-107)

아주 희소한 경우에만, 여성 참전자들은 가난을 벗어나고자 참전했다고 회
고하였다.

늘 배가 고팠지. 머릿속에는 오로지 전선으로 가고 싶다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
어. 누가 그러는데 전선에 가면 어쨌든 배는 굶지 않는다는 거야. (알렉시예비치
2015, 126)

젊은 여성이 가난이나 가정 내에서의 억압 같은 개인적 사정을 벗어나기 위
해 군대에 입대한 이야기는 1차 대전 시기 여성 결사대원들 사이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었다. 2차 대전 시기에도 그러한 사례가 있었음은 하등 놀라운
일이 아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 스탈린 정권의 탄압을 받아 수감된 가족을 둔 소녀가
‘인민의 적’이라는 시선을 벗어나기 위해 빨치산 대원이 된 일을 들 수 있다.

우리 빨치산에 용맹한 소녀 병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소녀는 전쟁 나기
전에 가족이 모두 당국의 탄압을 받았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물론 두 오빠까지.
그래서 이모와 살았죠. 그러다 전쟁이 터지자 곧장 빨치산을 찾아온 거예요. 다

른 병사들이 보니까 그 소녀가 뽀족한 말뚝 위로 기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자신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거죠…… 남들 다 포상을 받을 때 그 소녀병사만 못 받았어요. 유독 그 소녀병사에게만 한 번도 메달이 수여되지 않은 거예요. 부모가 인민의 적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우리 군이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그 소녀병사는 다리 하나를 잃었어요. 병원으로 병문안 갔더니…… 울더라고요…… ‘다리는 잃었지만 이제 모두 나를 믿어주겠죠’라면서. (알렉시예비치 2015, 164)

대부분의 증언자들이 자신들의 입대의 자발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의심하거나 폄하할 이유는 없다. 게다가 독소전쟁은 소련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방어전쟁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어떻게 히틀러가 모스크바를 차지하도록 보고만 있겠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지! … 내 또래 소녀들은 너나없이 전선으로 가겠다고 나섰지. … 나는 선발이 안 될까봐 가슴을 졸였어. (알렉시예비치 2015, 67)

조국을 지키는 일에 동참하면서 유용한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는 나라를 막론하고 젊은 여성들에게 특별하거나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니었다. 앞서 언급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은 만 16세였던 1942년에 이미 노동교환 부대원으로 등록하였으나 아버지인 조지 6세 국왕의 반대로 실제 부대활동은 하지 못하다가 전쟁이 거의 끝나가던 시기인 1945년 3월에 실제로 군복무를 하게 된 것이다. 그녀가 군복을 입고(치마군복도 입었지만 바지군복도 입었다.) 군용트럭을 정비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은 현재 여러 장 남아있다(Wild 2015). 한국의 독립운동사에서는 여성 전사들의 역사를 새로 발굴하여 부각시키고 있다. 남자현, 박차정 등 무장독립운동 활동을 벌인 여성전사들의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는다면 2차 대전 시기 젊은 소련 여성의 참전이 부정적 평가대상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이종훈은 2차 대전 시기 여성 야간폭격부대원들의 전투 활동을 스탈린주의의 근대성과 연결시켜 설명한 바 있다(이종훈 2010, 311-313). 여자들의 활동을 소비에트 체제의 근대적 성격과 관련시킨다고 할 때 그 연원은 엄밀하게는 스탈린주의에서 찾기보다 오히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포괄적 젠더 혁명의 과정이기도 했다는 사실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러시아 혁명 이후 여성의 사회노동 참여가 장려되었고 여성은 공민으로서 교육받고 노동하는 존

재가 되었다. 독소전쟁 개전 시기에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공적인 활동에 참여해 온 역사가 이미 수십 년간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공적 영역 참여를 아주 자연스럽게 여겼던 것이다.

여학생들은 자신을 남학생들과 동등하다고 여겼고 학교도 남학생, 여학생 따로 구별하지 않았어. 오히려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아가씨들에게도 트랙터를!’ ‘아가씨들에게도 조종간을!’이라는 선전문을 들으면서 자랐으니까. (알렉시예비치 2015, 100)

빨치산 활동을 하는 여성들의 고난은 어떤 면에서는 정규군보다 훨씬 더 심했다. 가족들을 위협에 빠뜨리면서 싸워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빨치산 활동에도 여자들은 주저 없이 뛰어들곤 하였다.

사람들이 모성본능이 가장 강하다고들 하잖아. 아니, 이념이 더 강해! 신념이 더 강하지! 내 생각엔 그래…… 만약 그런 엄마들이 없고 그런 아이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승리하지 못했을 거라고. (알렉시예비치 2015, 443)

스탈린 집권 이후에는 오히려 전통적 모성이 강조되어 여성의 공적 활동이 위축되었던 면도 있다.

2. 전쟁에 대한 소녀들의 무지와 환상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스탈린 정권의 선전이 국민들에게 전쟁의 실상에 대한 오해를 심어주었고, 그 때문에 지나치게 어린 소녀들이 전쟁의 실상에 대해 지나치게 무지한 상태에서 전선으로 갔던 것도 사실이다.

전선으로 갈 때 내가 어땠냐면…… 아마 얘기해도 믿지 못할 거야…… 나는 전쟁이 금방 끝날 줄 알았어. 우리가 금방 승리할 거라 철석같이 믿었지. 그래서 평소 아끼는 치마랑 양말 두 켤레, 구두 한 켤레를 챙겨갔어. 보로네슈에서 퇴각할 때였는데 가게 하나가 보이는 거야. 곧장 뛰어 들어갔지. 그 가게에서 나는 하이힐 한 켤레를 더 샀어. (알렉시예비치 2015, 136)

처음 전투에 나갔는데 장교들이 자꾸 나를 흥벼 쪽으로 떠다미는 거야. 앞이 잘

안 보여서 고개를 내밀었지. 앞에 뭐가 있나 궁금했거든. 어떤 호기심이 발동한 거지. 어린아이 같은……. 그렇게나 철이 없었을까. 지휘관이 소리쳤어 ‘세묘노바 병사! 세묘노바 병사, 정신 나갔나! 엄병할……. 돼지려고 그래?’ 나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 ‘이제 막 전선에 온 사람을 어떻게 죽인다는 거지?’ 그때는 몰랐어. 죽음은 사람 가려가며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걸. 죽음은 아무리 애원해도, 설득해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렉시예비치 2015, 155)

소녀들은 군대 입대를 청소년단(피오네르) 캠프에 가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여겼던 것처럼 보인다. 입대하여 화물트럭을 타고 전선으로 가는 소녀들을 묘사하는 증언 중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도 있다.

보고 있자니 전쟁터가 아니라 꼭 어디 아마추어 예술 공연이라도 가는 것 같더라니까. 정말 볼 만했지. … 글썽 슈라 키셀레바는 기타까지 챙겨 왔더라니까. 계속 가다 보니 하나둘 참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지. 병사들이 우리를 보고는 소리쳤어. ‘가수들이다. 가수들이 왔다.’ (알렉시예비치 2015, 174)

불가침조약까지 맺어가면서 독일과의 전쟁을 피하려고 했었다는 점에서 스탈린을 호전광으로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국의 어린 소년소녀들을 뒤통도 모른 채 전선으로 나가 총알받이가 되게 만들었다는 데 대한 책임은 스탈린에게 있다.

3. 여성 군인들의 고난과 고충

1차 대전에서는 여자들이 여성 결사대와 같은 부대를 별도로 이루었지만 2차 대전에서는 여성부대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성이 남성과 똑같이 부대에 배치되었다. 이들은 간호병, 취사병, 통신병 등 비전투요원으로도 일했지만, 그 못지않게 전투병으로도 동원되었다. 실제로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고 백병전까지 참가하였다. 전선에서 이들의 역할이 얼마나 컸던지 독일군은 특히 소련의 여자 군인들을 극도로 증오하였고, 그들이 포로로 잡힌 경우 잔인하게 학대하였다. 한 증언자는 독일군은 소련 여군들을 포로로 잡지 않고 바로 총살해 버렸다고 회고했다. 예외적으로 포로로 잡은 19세의 소련 여자 간호병에게 독일군은 눈알을 도려내고 가슴을 잘라낸 후 말뚝에

박아버리는 어마어마한 만행을 저질렀다고 한다(알렉시예비치 2015, 243).

여성 군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배려가 있기는커녕 여자 병사들은 여성이기 때문에 엄청난 불이익을 겪어야 했다. 몸에 맞는 군복이 없이 치수가 훨씬 큰 남자 군복과 군화를 착용해야 했고 여성부대가 따로 편성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자 병사들과 같은 공간에서 취침해야 했다(알렉시예비치 2015, 413). 동시에 이들은 여성으로서의 신체적 특징에서 오는 불이익을 모두 겪어야 했다. 책 속의 여러 증언 가운데 가장 끔찍하게 여겨지는 것 하나는 여성 군인들이 생리혈을 처리할 수단이 전혀 없었기에 생리혈을 흘리면서 행진하기까지 했다는 사실이다(알렉시예비치 2015, 357). 그런 극한상황 속에서 젊은 여자들은 월경 중단을 겪기도 하였다.

우리는 전쟁 내내 여자가 아니었어. 여자로서의 성장이 전혀 없었으니까…… 월경도 없었고. … 전쟁 끝나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어. (알렉시예비치 2015, 351)

반년이 지나자 우리는 더 이상 여자가 아니었어…… 매달 하는 그것도 끊기고…… (알렉시예비치 2015, 356)

젊은 여자군인들은 전선에서도 섬세한 감정을 잃지 않았고 들꽃을 보며 기쁨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의 감정은 무시되곤 하였다. 들판의 제비꽃을 꺾어 총에 매단 소녀 병사에게 지휘관은 “군인은 꽃이나 따서 모으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 남자들로선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라고 일갈하며 야단을 쳤다(알렉시예비치 2015, 134-135).

4. 방어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는 주로 젊은 남성 군인들이 전투 병력으로 참가하였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서 사기는 높지 않았고 병사들은 군비 부품을 빼내서 마약을 구입하여 복용하였다. 상당수는 귀국한 후에도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하여 정신적 문제를 안고 살았다. 아프가니스탄 참전 병사들의 어머니, 아내, 병사들 자신들의 목소리를 담은 『아연 소년들』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에피소드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참전 후 귀국하여 토막 살인을 저지른

청년에 관한 이야기이다(알렉시예비치 2017, 9-19). 그의 부대원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마약을 복용했었다. 전쟁의 정당성, 도덕성에 대한 회의가 일단 일어나면, 남성이라고 해서 결코 전쟁 수행에 적합한 존재가 아니게 된다.

그곳에서는 서로 상대방의 물건을 훔치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군용차량의 부품들까지 해체해서 아프간 상점에 가져다 팔 정도였죠. 그 돈으로 마약을 샀어요…… 마약, 담배, 음식도요. (알렉시예비치 2017, 13)

이 청년은 군 복무 당시 가혹한 군율을 못 이겨 양 손목을 그어 자해를 시도했었다. 그런데 부상도 당하지 않고 무사히 귀국했음에도 귀국 당시 기쁜 표정이 없었다. 그는 토끼의 피를 보고는 전쟁 당시 치명상을 입어 자기가 쏘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전우를 떠올리는 일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죽음과 살인에 대해 아무 감각이 없는 정신적으로 아픈 인간이 되어 있었다. 이 청년의 변호사는 “피고석에 앉은 사람은 죄수가 아니라 환자다.”라고 지적하였다(알렉시예비치 2017, 18).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돌아온 후에는 눈에 보이는 것마다 삽, 포크, 막대기, 펜 등으로 찌시면서 “묘지”를 파고 있다고 주장하는 실성한 청년에 관한 에피소드도 있다(알렉시예비치 2017, 26).

이에 비한다면 2차 대전 당시 소련군에서는 남녀를 막론하고 전쟁 수행을 둘러싼 심리적 갈등이나 회의적인 태도는 별로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에서 언급되는 인물들 가운데 총쏘기를 거부한 사람은 단 한 사람인데 여성이 아니라 “나이가 좀 있는 남자”였다. 그는 종교적 이유 혹은 특별한 윤리적 이유 때문에 집총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 군율을 어기면 자신이 처형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살인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처형당했다(알렉시예비치 2015, 147). 그는 총동원령이 내린 상황에서 징집당했기에 중년 정도였음에도 전선으로 왔을 것이다. 이에 반해 증언에 참여한 여성 병사들 중에는 집총을 거부하거나 전쟁 수행에 회의를 느끼는 인물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여성 군인들은 전쟁에 몰입했고, 어떠한 불편함과 엄격한 군율도 모두 감수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은 더욱 커졌다.

5. 독일군 포로, 독일 민간인들에 대한 태도

1945년 봄 소련군이 결정적 승리를 굳힌 다음 동유럽을 지나 독일로 들어가면서 소련 병사들은 독일인들에게 군율에 어긋나는 복수를 행하기도 하였다. 그중 가장 악명 높은 것은 독일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행이다. 이들의 독일 여성 상대 집단 성폭행은 일기 형식을 빈 ‘베를린의 한 여인’의 서술,¹⁰⁾ 영화감독인 헬케 잔더의 책과 다큐멘터리 필름¹¹⁾에서도 그 실상이 어느 정도는 드러나고 있다. 2차 대전 당시 소련군은 군위안소를 운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독일군은 파리에 위안소를 설치하였고 폴란드와 소련을 침공한 이후에는 현지 여성들을 강간하였다. 알렉시예비치와 인터뷰한 여성 참전자들의 증언 중에도 소련군 장교나 병사들에 의한 독일 여성 성폭행 이야기가 들어 있다.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당해 임신하거나 성기가 찢어져 피를 흘리는 여자들에게 대한 묘사도 포함되어 있다(알렉시예비치 2015, 517). 일설로는 소련 여성이 독일 군인과의 사이에서 임신하여 낳은 아이가 백 오십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Sander & Johr 1992, 14), 소련 남성들은 이 점 때문에도 독일 군인들에 대해 격렬한 적개심을 품고 있었다. 소련 병사들의 독일 여성 성폭행은 엄청난 규모로 행해져서 피해가 특히 심한 곳 가운데 하나였던 베를린에서는 전체 여성 140만 명 가운데 80만 명이 강간당했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다(Sander & Johr 1992, 15). 헬무트 콜 전 독일 수상 부인이었던 하넬로레 콜이 열두 살 소녀의 몸으로 소련군 병사들에

10) ‘베를린의 한 여인’은 익명의 여인이 1945년 4월 20일부터 6월 22일까지 자신의 거주지인 베를린에서 소련군 병사와 장교에 의해 성폭행당한 자신의 경험을 일기에 적는 형식으로 쓰인 책이며 1954년에 영어권에서 먼저 출판된 후 1959년에 독일어로도 출판되었다(Anonyma 1959). 후일 이 책의 필자는 기자 출신인 마르타 힐러스(Martha Hillers, 1911-2001)라는 사실이 밝혀졌다(Redmann 2008, 198 참조). 이 책이 허구는 아니더라도 1945년 이후 몇 년이 지난 시점에서 대폭 추가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주장은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Bahners 2019).

11) 잔더의 기록영화 제목은 <해방자와 피해방 여성: 전쟁, 강간, 아이들(BeFreier und Befreite: Krieg, Vergewaltigungen, Kinder)>이다. 그녀는 1945년 나치 독일의 패망이 확실시되던 시기에 독일에 진주한 외국군(소련군뿐 아니라 미국, 영국 등 서방 연합군도 포함한다)에게 강간을 당했거나 이를 목격한 여성들과 인터뷰하여 패전국 독일여성들에 대한 집단 성폭행의 구체적 양상을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Sander & Johr 1992는 이 문제에 관한 연구 결과를 앞부분에, 기록영화의 대본을 뒷부분에 수록하고 있다.

게 강간을 당하여 척추 부상을 입었고, 그로 인한 심신의 상처를 이기지 못한 그녀가 만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Daily Mail Reporter 2011).

소련군 남자 병사나 장교들이 독일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이유가 남자들의 성욕 충족에 있었는지 복수심을 충족시키는 데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어렵다. 소련 병사들은 전시 강간의 이유 중의 하나로 흔히 이야기되곤 하는 전략으로서의 전시 집단 강간을 행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전략으로서의 집단 성폭행은 전쟁 수행 시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하고 상대에게 무력감을 안겨주기 위한 목적으로 자행되는 것임에 반해 소련 군대는 이미 승리자로서 독일 국경 안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이다.

소련군 여자 병사들도 독일군과 직접 전투하거나 그들의 만행을 눈앞에서 목격했을 때는 생사를 건 싸움을 전개하였고 그들에 대한 강한 증오심을 품었다. 한 증언자는 견갑을 길 없었던 나치 군대의 만행을 돌이켜 보며 이렇게 말하였다. “놈들의 증오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정말 이해할 수 없었지. 우리야 미워하는 게 당연하잖아. 하지만 놈들은 왜?”(알렉시예비치 2015, 520) 이 질문은 소련군 병사뿐 아니라 2차 대전 당시 나치 군대가 소련에서 저지른 만행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바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품을 수밖에 없는 의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소련군 여자 병사들은 독일군이 부상을 입거나 포로로 잡혀 무력한 상황일 때 그들에 대해 증오감이나 적대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이 점은 매우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라크 전쟁 당시 아부 그라이브 포로 감옥에서 이라크 포로를 발가벗긴 채 목줄을 달고 개처럼 바닥으로 끌고 다녔던 미군 여자 병사 린디 잉글랜드(Lyndie England)의 경우¹²⁾를 생각해 볼 때 여성이 선천적으로 남성보다 더 동정심이 많거나 더 다정다감하다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들릴 수 있다. 여성이건 남성이건 폭력성을 가지고 타인을 가혹하게 대하는 정도가 다른 것은 그가 여성이거나 남성이거나 하는 특정 성별에 소속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그가 가진 권력, 지위, 삶의 경험 속에서 타인의 폭력성과 증오심에 노출된 정도, 폭력성을 드러냄으로써 그가 얻게 되는 심적 만족도 등이

12) 린디 잉글랜드 사건을 보도하였던 『워싱턴 포스트』지 기자는 고문 당시 그녀에게는 에로티시즘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포로에게 성적 굴욕(sexual humiliation)을 주는 것이 고문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았다(Wiltz 2005).

개별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타인, 특히 적에 대한 증오감의 정도나 표현 방식을 성별에 따라 단순화시켜서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적어도 알렉시예비치의 증언록에서 발언한 소련 여자 병사들은 이 책에 등장하는 많은 남자 병사들에 비해 독일인들에 대해 훨씬 더 인간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들은 독일군일지라도 자신들의 목숨을 위협하지 않는 약자가 되어 있을 때는 기꺼이 그들에게 동정을 베풀었다. 그들은 독일군 병사에게 빵을 떼 주어서 동료 남자 병사에게서 원망을 듣기도 했고 부상 당한 독일인 병사를 치료해 주었으며, 독일군 포로가 위해를 가하려 할 때 그를 죽일 수 있는 형편이었음에도 목숨을 살려 주었다. 독일 국경 안으로 들어갔을 때도 여자 병사들은 독일 민간인들에게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다. 기관단총을 손에 든 채 거리로 나와 겁에 질려 있는 독일 소년을 살려주기 위해 얼른 건물 안으로 밀어 넣는 소련군 여자 병사의 모습(알렉시예비치 2015, 521)은 그들이 점령한 마을에서 서로 입 맞추고 있던 유대인 소년 소녀를 총으로 쏘아 죽였던 독일군 남자 병사의 잔인성(알렉시예비치 2015, 367-368)과 큰 대조를 이룬다.

6. 전쟁 후의 전공(戰功) 불인정과 강요된 침묵

전쟁 참가자들에 대한 대우는 그 전쟁에 대한 사회 전체의 인식에 따라 달라지는 면도 분명히 있다. 미국의 베트남 전쟁은 미군들이 자국의 전쟁이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싸운 최초의 전쟁이었다. 전쟁의 트라우마는 엄청났다. 마이클 치미노 감독의 영화 <디어 헌터>는 이러한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다룬 작품이었다. 방어 전쟁이 아니고 타국의 영토를 침범해서 치른 전쟁이었던 데다 본국에서 반전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행한 전쟁이었기에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회의는 더욱 강력해졌다. 비무장 민간인 학살, 마을 주민 몰살과 같은 만행도 이에 비례하여 빈번해졌다.

소련의 베트남 전쟁으로 흔히 비유되곤 하는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그 같은 회의의 대상이 되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방어 전쟁이 아니었고 다른 나라에 파견된 병력이 다른 나라 무장세력을 상대로 하여 싸운 전쟁이었다. 이 전쟁에서 살아온 한 남자군인은 귀국 후의 자신의 느낌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거기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조국과 우리 삶의 방식을 지켰다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친구라는 녀석이 나한테 3루를 빌려주는 것도 싫어하더군요. ... 우리는 집에서도 불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겪은 일 따위는 이곳에 필요치 않아요. 쓸데없고 불편할 뿐이죠. ... 이곳은 사방이 높이예요. 사람들은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있죠. ... 우리한테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만약 우리가 직접 나서서 우리 권리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 전쟁은 그냥 묻혀 버렸을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면, 십만 명이 아니었다면 우리를 입을 막아버렸을 거고요. 옛날에 베트남 전쟁, 이집트 전쟁 후에 그랬던 것처럼..... (알렉시예비치 2017, 288-289)

이 병사는 자기가 관 속에 누워 있고 사람들이 망치로 관을 닫아버리려고 하는 꿈을 되풀이해서 꾀다. 그리고 꿈속에서 ‘저 사람들은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거야. 어쩌면 나는 진짜 죽었는지도 몰라. 그럼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어야겠군.’하고 생각한다(알렉시예비치 2017, 290).¹³⁾

이에 반해 독소전쟁은 소련의 입장에서는 방어 전쟁이자 “대조국전쟁”이었고 독일군을 막아낸 참전군인들은 영웅으로 여겨졌다. 남자 참전군인들은 전쟁 기간 중에도,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 영웅성과 희생정신을 찬양받았다. 그렇다면 여성 참전군인들에 대한 전후 소련 사회의 대우는 어떠했나?

역사적으로 전쟁에서의 공로를 통해 구성원의 법적, 정치적 지위가 높아지는 경우가 빈번하였기에, 같은 근거에서 여성의 전쟁 참여를 독려하거나 자국의 전쟁 정책을 지지하는 여성운동가들의 사례는 현대사에서 드물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에멀라인 팅크히스트와 크리스타벨 팅크히스트를 비롯한 일군의 영국 여성참정권 운동가들은 1차 대전 당시 자국의 전쟁 참여를 지지하였고 전쟁 수행을 지원하였다(Connolly 2015, 2).¹⁴⁾ 실제로 영국 여성들은 1차 대전 후 참정권을 얻었으며 미국 여성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전쟁에서 미국, 영국 여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13) 이 같은 증언을 한 사람은 타라스 케르무츠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타라스 케르무츠는 자신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알렉시예비치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그런데 법정에서 알렉시예비치가 그가 인터뷰 당시 했던 말을 다시 읽어주자 자기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지 않았다(알렉시예비치 2017, 433-436, 479-480).

14) 반면 에멀라인의 딸이자 크리스타벨의 자매인 실비아는 전쟁 반대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공헌을 하면서 2차 대전을 자국의 승리로 이끄는 데 기여한 소련의 여성들은 종전 후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 참전한 여성들이 대부분 너무 젊어서 사회적 요구를 제기하는 데 미처 생각이 미치지 않았던 것도 이유일 수 있고,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서 방법을 몰랐을 수도 있고, 이들이 조국의 승리와 이외의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에 그랬을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어쨌거나 이들에 대한 전후의 처우는 너무나 야박하였다. 그들은 전시의 공헌에 대해 메달이나 훈장을 다수 받기는 하였지만, 이것으로 끝이었다. 소련 국가와 소련 남성은 여성 참전자들의 공을 인정하지 않았다. 무기를 든 여성이 총구를 국가와 남성에게로 향하게 할까 봐 두려워했던 것일까. 잔 다르크는 화형을 당했지만, 소련의 여성 참전자들은 화형을 당하지는 않았던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여겨야 할까.

사실 미국이나 유럽의 여성도 참정권을 얻은 것 이외에는 전쟁이 끝난 후 사회적으로는 얻은 것이 별반 없었다. 그들은 리벳공 로지(Rosie the Riveter)의 포스터로 상징되듯, 후방에서 ‘산업 전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였지만 전후에는 가정으로 돌려보내졌다. 소련의 경우 여성의 사회노동 참여가 사회적 합의 가운데 하나여서 전쟁 이전에도 거의 모든 여성이 사회적 노동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 이후에 일방적으로 가정으로 돌려보내지거나 한 것은 아니다. 여자들은 여전히 집단 농장에서 트랙터를 운전하거나 거리에서 화물차를 몰거나 공장에서 회계요원으로 일하거나 교사, 간호사, 의사로 일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전쟁 이전 삶의 연장이었을 뿐이다. 오히려 전쟁에 참여한 여자들은 철저한 침묵을 강요받았다.

처음에 우리는 과거를 숨기며 살았어. 훈장도 내놓지 못했지. 남자들은 자랑스럽게 내놓고 다녔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했어. 남자들은 전쟁에 다녀왔기 때문에 승리자요 영웅이요 누군가의 약혼자였지만 우리는 다른 시선을 받아야 했지. ... 우리는 승리를 빼앗겼어. ... 남자들은 승리를 우리와 나누지 않았어. (알렉시예 비치 2015, 221)

그것은 이들이 성적으로 방종한 여자라는 악소문이 유포되어 사회적으로 나쁜 평판을 얻었던 것과도 관련이 있다.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여자들도 이 같은 냉대에 동참하였다. 심지어 친어머니조차 동생들의 결혼을 위해 참전 병사인 자기 딸을 집 밖으로 몰아냈다.

군대를 따라 베를린까지 다녀왔어…… 두 개의 명예훈장과 메달들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지. 집에서 3일을 지내고 나흘째 되는 날, 다들 자고 있는데 이른 아침에 엄마가 나를 깨우더라고. “딸아, 네 집은 내가 싸 놓았다. 집에서 나가 주렴…… 제발 떠나…… 너한테 아직 어린 여동생이 돌이나 있잖아. 동생들을 누가 머느리로 데려가겠니? 내가 4년이나 전쟁터에서 남자들이랑 있었던 것을 온 마을이 다 아는데…… (알렉시예비치 2015, 54)

나는 전쟁영웅이었고 더욱이 전선에서 왔다는 이유로 조롱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 다들 둘러앉아 차를 마시는데 시어머님이 내 남편을 부엌으로 데려가더니 우시는 거야. ‘지금 누구랑 결혼하겠다는 거냐? 전쟁터에서 데려온 여자라니…… 너는 여동생이 돌이나 되잖아. 이제 누가 네 동생들하고 결혼하겠니?’ (알렉시예비치 2015, 549)

조국이 우리를 어떻게 맞아줬을 것 같아? 통곡하지 않고는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 남자들은 나 몰라라 입을 다물었고 여자들은…… 여자들은 우리에게 소리 질렀어 ‘너희들이 거기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아! 젊은 몸뚱이로 살살 꼬리나 치고…… 우리 남편들에게 말이지. 이 더러운 전선의…… 군대의 암캐들아……’ 우리는 정말 온갖 말로 모욕을 당했어. (알렉시예비치 2015, 429)

여성 참전자들에 대한 전쟁 후의 냉대는 여들과 승전의 공을 나누고 싶지 않았던 남성 참전자들이 그녀들에 대해 의도적으로 유포한 성적 방종 이미지 때문일까. 가장 악의적이고 비인간적인 면은 바로 이 점에 있다고 하겠다. 여성이 전투요원으로 전선에 투입된다는 것은 평등주의적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공적 행위의 극한 수준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고 높은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한 보상 체계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가장 용기 있게 싸운 여자들이 가장 심한 오명을 쓰고 침묵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녀들은 전후 보상을 요구하고 싶지 않았거나 할 줄 몰랐던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하도록 침묵 당했다. 그것도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7. 여성 참전자들은 희생자였나?

소제목의 질문을 “여성 참전자들은 소련 체제의 희생자였나?” 혹은 “그들은 스탈린 체제의 희생자였나?”라고 좀 더 구체화해서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먼저 말할 수 있는 것은 여성의 참전은 소련 사회의 남녀평등 정책의 산물이었다는 점이다. 여성이 다른 사회에 비해서 참전을 훨씬 더 손쉽게 받아들였던 것은 소련이 호전적인 사회여서가 아니라 남녀평등의식이 그만큼 높은 사회였기 때문이다. 전쟁터에서 젊은 여성 군인들은 여성에게 필요한 숙소, 의복, 위생 건강 조치들을 제공 받지 못하였다. 때로는 성적 대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여성군인들은 독일인들도 무서워할 정도로 용감하게 싸웠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여성 군인들은 남자 군인들에 비해 포로나 약자들에 대해 더 다정다감했고 전쟁터에서도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을 잊지 않으려 했다. 독일 군인들에 대한 증오심을 당연히 가지고 있었으나 그들이 약자였을 때는 그들에 대해서도 동정심을 품었다. 여성 군인들은 훈장을 여럿 받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막대하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 그들은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하고 냉대받았으며 곧 잊혀졌다.

2차 대전 참전 여성 병사들이 비극적 경험을 하거나 목숨을 잃었다면 여기에서 스탈린의 범죄라는 요소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스탈린은 엄청난 과오를 저지른 것이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그는 1937년의 숙청으로 군부의 유능한 인사들을 제거하여 소련군의 전투 능력을 현저히 약화시켜 놓았고, 히틀러 군대의 침공 우려가 속속 전해짐에도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 장담하면서 대비하지 않았으며, 전쟁에 대해 아무런 감도 잡지 못하고 있던 소녀들까지 전쟁으로 몰아넣었다.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중인 어린 소녀들까지 전쟁터로 갔던 것은 전쟁의 잔혹성에 대해 아무런 인식이 없었기 때문이고 어른들이 무책임했기 때문이다. 또한 젊은 소녀들까지 전쟁터로 내몰렸던 것은 전쟁 초반에 소련군이 워낙 심한 인명 손실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기본적으로 여성 병사들의 참전은 나치가 침공해 온 데 대한 저항이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제노사이드 상황에서 유대인들에게 무기가 주어졌다고 하자. 이때 젊은 여성도 무기를 들고 저항을 했다면 이는 당연하게 여길 것이다. 소련에 대해 선전포고 없이 자행된 나치독일의 침략전쟁은 홀로코스트와 다를 바 없었고 여기에 맞서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저항을 한 것이었으며, 여기에 소녀들, 젊은 여자들도 동참한 것이다. 여자들을 전쟁으로 몰아넣은 것은 일차적으로는 나치의 범죄이지 스탈린의 범죄는 아니었다. 여성 참전자들은 분명히 자기 결정권을 가졌고,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반대는 많은 경우 어머니들의 눈물 어린 만류였다) 스스로 참전을 결정하였다. 이들은 스스로 시민으로 자각하고 있었고 참전 속에서 역설적으로 존재의 고양을 경험하였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젊은 여자들과 소녀들이 ‘총알받이’ 역할을 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음에도 전쟁 후에 이들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쟁 후의 보상은 여성 전체의 지위 향상이라는 공적 측면과 군인 연금, 특별 보상금이나 주택 제공 같은 개인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여성의 공적 지위가 전쟁 전에도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쟁에서 여성 군인들이 흘린 피에 대한 보답으로 전쟁 후 여성 전체의 지위가 향상되는 현상은 없었다. 그뿐 아니라 이들은 개인적으로도 오랫동안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 오히려 여성 참전자들은 성적 방종 혐의 때문에 사회적으로 냉대 받기까지 하였고 이 때문에 이들은 오랫동안 참전 사실 자체를 감추어야 했다. 이들의 경험은 침묵되었다. 스탈린 체제는 여성 노동을 공적으로 활용하고 이들을 사지로 몰아넣을 때까지는 젠더 평등 논리를 적용했지만 여성 참전자들에게 보상해야 할 시기가 되니까 가장 완고한 젠더 이분법을 들이댔고 공로자를 젠더 규범 침해자로 만들어 따돌리고 고립시켜 버린 것이다. 알렉시예비치의 증언록에 나오는 가슴 아프고 슬픈 이야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음의 이야기는 탄식을 불러일으킨다.

친구는 군의관 보조였어…… 전쟁에서 세 번이나 부상을 당했지. 전쟁이 끝나자 의과전문대학에 들어갔어. 하지만 가족을 찾을 수 없었어. 전쟁중에 다 죽은 거야. 친구는 정말 지독히도 가난했어. 밥마다 아파트 현관을 청소하며 겨우 먹고 살았지. 그런데도 자신이 상이군인이며 그래서 특혜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오히려 모든 중병 서류들을 찢어 버렸지. 내가 ‘왜 찢었느냐’고 물었어. 친구가 울면서 그러더라고, ‘그럼 누가 나와 결혼하겠어?’ ‘그래 그렇잖다, 잘했어’ 라고 말해줬지. 그러자 이번에는 더 서럽게 우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그 서류들이 너무 필요해 몸이 너무 아파’ 그러면서 울었어. (알렉시예비치 2015, 200)

여성의 해방에 대한 논의의 지평은 알렉산드라 콜론타이가 정치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던 시절에나 가능했을 뿐 스탈린 집권기 이후에는 닫혀 버렸다. 그러면서 소련 체제는 여성에게 조국을 수호하라고 요구했으니, 이런 점에서 여성해방은 소련 여성에게 권리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의무의 차원에서만 주어진 것이었다.

성적 방종론이 만연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소련의 집권층이 젊은 참전 여성들을 사실상 은폐된 위안부처럼 이용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까지 한다. 물론 병영의 병사들 전체를 상대로 성적 접대를 해야 했던 위안부들과 군인이었던 여성참전자들은 그 성격과 역할이 기본적으로 다르다. 남자 군인들은 여자 군인들을 존중했고 누이라고 불렀으며¹⁵⁾ 그들을 보호하려 하였다.¹⁶⁾ 여자 군인들이 성적 대상으로 다루어지는 경우도 없지는 않았지만 이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그렇지만 증언자들이 되풀이해서 증언하고 있듯이 여자 군인들이 별개의 부대를 이루기보다 남자 군인들과 같은 부대에 편입되어 숙식을 같이했으며 군인들은 여자가 가까이 있기만 해도 분위기가 달라지고 부드러워졌다고 한다면¹⁷⁾ 집권자나 군부는 사실상 젊은 여자 병사들을 남자 병사들을 ‘미치지 않게’ 여성적 힘으로써 순치시켜주는 존재로 활용하고 있었다고 보아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들이 전쟁 후에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이들에 대한 이중의 배신이고 삼중의 기만인 것이다.

8. 집단기억의 형성

2차 대전에서의 승리는 20세기 후반 소련 체제를 결속시켜 준 가장 강력한 공통적 집단기억의 원천이었다. 소련 사회는 함께 겪고 함께 이겨낸 고난과 ‘위대한 승리’에 대한 기억을 되풀이 상기하면서 체제의 정당성을 뒷받침하

15) “우리한테 그들은 누이었소.” (알렉시예비치 2015, 109)

16) “다들 나를 보호해 줬지.” (알렉시예비치 2015, 153)

“처음 전투에 나갔는데 장교들이 자꾸 나를 흉벽 쪽으로 떠다미는 거야.” (알렉시예비치 2015, 155)

17) “우리 보병 중에도 소녀 병사들이 있었어요. 우리 중에 소녀 병사가 한 명이라든가 있으면 그만한 가치가 있었소. 당장 사기가 올라갔으니까. ... 전장에서 여자 웃음소리를 듣는 게 여자 목소리를 듣는 게 얼마나 좋은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 걸.” (알렉시예비치 2015, 198)

였고 2차 대전 승전 기념행사는 소련 체제의 권위와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끔 가장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참전 용사들이 훈장과 메달을 달고 사회구성원들의 칭송과 존경을 받으면서 이 기억 만들기에 참여하였음은 물론이다.

사실 2차 대전 중에서도 독소전쟁은 나치독일이 저지른 제2의 홀로코스트였다. 소련 내 슬라브인들에게 가한 나치 군대 만행의 규모와 이로 인한 피해자 수는 유대인에 대한 홀로코스트보다도 훨씬 더 컸다. 독일군은 다른 어떤 전선에서도 이토록 야만적이지는 않았다. 물론 프랑스는 일찌감치 항복했고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도 항복했음에 반해 소련군은 필사적으로 맞서 싸웠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나치독일 체제가 부추긴 슬라브인들에 대한 인종주의와 비인간적 독전 경향이 합세하여 소련 국경 안에서 보기 드문 살육극을 빚어냈다. 소련은 이 같은 만행에 맞서서 나치의 침공을 막아낸 것이고,¹⁸⁾ 그런 점에서 소련 국민들은 분명히 자랑스러워할 권리가 있었다. 그런 한편 보다 장기적으로 볼 때 독소전쟁은 그 후의 소련의 운명까지 좌우했고 소련의 몰락을 가져온 한 요인이기도 했다. 소련은 적어도 페레스트로이카 이전까지는 군비확장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소련의 여성 참전자들은 이 홀로코스트 상황에서 무기를 들고 싸웠으며 승리에 크게 기여했다. 그들도 승리자였다. 알브박스에 의하면 집단기억은 끊임없이 상기되어야 유지된다. 그러나 2차 대전 후 오랫동안 여성 참전군인들은 집단기억을 형성하지 않았다. 형성하지 못했다. 그들의 집단기억은 상기되지 못하고 묻혔기 때문이다. 여성성이 전쟁 경험을 누르고 은폐했다. 강요된 은폐였다. 알렉시예비치를 비롯한 여성 저널리스트들의 노력에 의해 비로소 집단 기억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한 여성 참전자는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왜 살아남았을까? 무엇을 위해? 생각해보면…… 그건 아마 지금 이렇게 그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알렉시예비치 2015, 187) 알렉시예비치가 여성 참전군인들과 인터뷰하기 시작하자 증언희망자들은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한 여성 참전군인은 알렉시예비치에게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힌 긴 명단을 건네주었다. “당신이 연락하면 다들 기뻐할 거야. 기다리고들 있어. 그 일을 기억하는 것은 끔찍하지만 그 일을 기억하

18) 유대인들에 대한 홀로코스트에 대한 보상으로 이스라엘 건국이 이루어졌다면, 소련이 동슬라브판 홀로코스트를 겪으며 나치를 막아낸 데 대한 보상으로 동유럽 지역에 완충지역이 만들어진 것이다.

지 않는 게 더 끔찍하거든.”(알렉시예비치 2015, 225) 그 집단기억의 형성은 너무 늦지는 않은 듯하다.

알렉시예비치의 증언집에는 죽은 소녀 병사들에 관한 묘사가 몇 번 나온다.

들판 곳곳에 죽은 병사들이 흩어져 누워 있는데 모두 새파랗게 젊은 청년들이 있어. … 저 만큼 아가씨 하나가 보이는 거야. 죽은 소녀 병사였어…… 순간 모두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못했지. (알렉시예비치 2015, 135)

아군이 퇴각할 때가 생각나요. 가을이었는데 며칠 밤낮을 비가 내렸어요. 길가에 소녀병사가 죽어 있었소…… 머리가 긴 아가씨였는데 온몸이 진흙투성이였지. (알렉시예비치 2015, 165)

소녀 병사들 시신을 많이 봤거든요…… 진흙탕 속이고 물웅덩이 속이고 죽어 누워 있는데…… (알렉시예비치 2015, 290)

젊은 여성 군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흉한 모습으로 죽는 것’이었다.¹⁹⁾ 그런데 바로 그런 죽음을 죽어야 했던 소녀들, 진흙탕 속에 처절한 모습으로 숨겨 누워 있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소녀 병사들은 영혼이라도 위로받기를 원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염원이 그들에 관한 집단기억 형성을 도왔을 것이다.

IV. 맺는말: 전쟁은 인간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알렉시예비치는 전쟁은 남자들을 위해서는 “가장 사랑하는, 가장 훌륭한 놀이”(Из стенограммы 1993)인 반면, 여성은 전쟁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확고하게 품고 이를 되풀이 역설하고 있다. “여자의 몸에는 고도 자체가 엄청난 압력으로 작용해. 그래서 복부가 그대로 척추를 짓누르

19) “나는 죽어서 흥측한 꼴로 누워있게 될까 봐 너무 두려웠어요.”(알렉시예비치 2015, 290)

“마지막까지 나를 두렵게 한 건 딱 하나였어. 흥측한 몰골로 죽어 누워있는 것. 그 건 여자에게 가지는 공포였지.”(알렉시예비치 2015, 348)

는 것 같을 때가 많았지”라는 여성 전투기 조종사의 발언도 싣고 있다(알렉시예비치 2015, 140). 여성이 전쟁 후에 보상을 받지 못했고 여성으로서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 받지 못했다고 하는 점을 제외할 때 전쟁에서 여성이 더 고통을 겪는다고 하는 알렉시예비치의 판단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전쟁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모두 고통을 겪었다. 그런데 알렉시예비치는 전쟁은 남성의 일이라 여겼기 때문에 여성이 전쟁에 나가 싸우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더 강하게 느꼈을 뿐이다.

알렉시예비치는 전쟁에는 여성의 얼굴이 없다고 썼다. 그녀는 젠더 이분법에 입각하여 인터뷰하고 증언록에 자신의 느낌과 해석을 담았다. 알렉시예비치는 평화주의적이기는 한데 적어도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에서는 전쟁의 비인간성을 고발했다기보다 소련식 전쟁의 비여성성을 고발하였다. 그러나 여성 참전자들은 젠더 이분법을 넘어서 있었다. 이분법이 아니라 젠더 감수성을 고려하면서 이들의 활동과 감정을 다시 보아야 한다.

전쟁은 여성의 얼굴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이는 알렉시예비치의 후속작인 『아연소년들』에 기록된, 전쟁으로 인해 파멸한 수많은 젊은 남성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대량살상은 누구에게나 비인간적이다. 답은 ‘여자도 전쟁에 참가하자’가 아니라 ‘그 누구도 전쟁을 하지 말라.’이다. 그럼에도 나치독일의 침공에 맞서 승리를 이루어낸 여성 참전자들은 기억되고 기려져야 한다. 그들은 공적 가치를 위해 투쟁하고 죽고 부상당하고 온갖 희생과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니까.

한정숙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역사·여성사·서양현대사를 주로 공부한다. 독일 튀빙겐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부산여자대학(현: 신라대학교) 전임강사, 세종대학교 조교수를 거쳐 서울대학교 서양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대표 저서: 『시베리아 유형의 역사』(민음사, 2017),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길, 2008), 『세계사 속의 러시아혁명』((공저)한울아카데미, 2019), 『독일통일과 여성』((공저)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번역서: 『우크라이나의 역사1』(아카넷, 2016), 『우크라이나의 역사2』((공역)아카넷, 2016), 『비잔티움 제국사 324-1453』((공역)까치, 2010), 『유랑시인』(한길사, 2005), 『봉건사회1』(한길사, 1990[2010]), 『봉건사회2』(한길사, 1990[2001])

참고문헌

- 루소, 장 자크 저. 민희식 역. 2006. 『에밀』. 서울: 육문사.
- 류한수. 2006. “제2차 세계대전기 여군의 역할과 위상: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비교 연구.” 『서양사연구』 제35집, 131-159.
- 심지은. 2017. “‘붉은 인간’의 전쟁: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의 5부작과 전쟁.” 『러시아연구』 27권 2호, 171-200.
- 알렉시예비치, 스베틀라나 저. 김은혜 역. 2011. 『체르노빌의 목소리: 미래의 연대기』. 서울: 새잎.
- 알렉시예비치, 스베틀라나 저. 박은정 역. 2015.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파주: 문학동네.
- 알렉시예비치, 스베틀라나 저. 박은정 역. 2017. 『아연소년들』. 파주: 문학동네.
- 양만중. 2016.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목소리 소설 시학: 5대 중편소설의 정치지향성과 목소리 소설 형태를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26권 2호, 239-267.
- 윤영순. 2016. “문학과 다큐멘터리: 알렉시예비치의 목소리 소설을 중심으로.” 『러시아어문학 연구논집』 53권 1호, 93-117.
- 이시연. 2009. “나폴레옹 전쟁 시대 러시아의 여성 기병장교 두로바(Надежда Андреевна Дурова).” 『역사학보』 204, 269-313.
- 이종훈. 2010. “스탈린주의의 근대성과 ‘밤의 마녀들’ : 1930년대 소비에트 사회의 에토스와 여성 야간폭격연대 부대원의 삶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제37집, 309-338.
- 최지은. 2015. “제1차 세계대전기 러시아의 총력전 체제와 여성 결사대.”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Алексиевич, Светлана. 2019. *У войны не женское лицо*. Москва: Время. Из стенограммы заключительного судебного заседания Декабря 1993 г. Из выступления С. Алексиевич. автора “Цинковых мальчиков.” lectmania.ru.(최종검색일: 2023/10/5).
- Латкина, Т. В. 2015. “К вопросу об определении жанра произведения Светланы Алексиевич «У войны не женское лицо».” *Современные*

проблемы науки и образования № 2 (часть 1).

- Шахноза, Бердиева. 2022. “Образ автора в романе-голосов С. Алексиевич «У войны не женское лицо».” *Central Asian Research Journal For Interdisciplinary Studies(CARJIS)* Volume 2 Issue 5: 499-506.
- Ackerman, Galia et Lemarchand, Frédéric. 2009. “Du bon et du mauvais usage du témoignage dans l’œuvre de Svetlana Alexievitch.” *Tumultes* № 32-33: 29-55.
- Alexievich, Svetlana. 2017. *The Unwomanly Face of War* tr. by R. Pevear and L. Volokhonsky. New York: Random House.
- Anonyma. 1959. *Eine Frau in Berlin: Tagebuchaufzeichnungen vom 20. April bis 22 Juni 1945*. Frankfurt: Genf: Helmut Kossodo.
- Bahners, Patrik. 2019. “Eine Frau in Berlin: Die wahre Geschichte der Anonyma.”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2019.6.27.).
- Connelly, Katherine. 2015. “Sylvia Pankhurst, the First World War and the struggle for democracy.” *Revue Francaise de Civilisation Britannique* XX-1 Revisiting the Great War: 1-13.
- Hitzer, Bettina. 2011. “Emotionsgeschichte - ein Anfang mit Folgen.” *H.-Soz-Kult* 23.11: 1-80.
- Lenart-Cheng, Helga. 2020. “Personal and Collective Memories in the Works of Svetlana Alexievich.” *History and Memory: Studies in Representation of the Past* 32(2): 78-109.
- Novikau, Aliaksandr. 2017. “Women, wars and militarism in Svetlana Alexievich’s documentary prose.” *Media, War & Conflict* 10(3): 314-326.
- Pennington, Reina. 2010. “Offensive Women: Women in Combat in the Red Army in the Second World War.” *Th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74: 775-820.
- Pinkham, Sophie. 2016. “Witness Tempering: Nobel laureate Svetlana Alexievich crafts myths, not histories.” *The New Republic*. August 29.
- Redmann, Jeniffer. 2008. ““Eine Frau in Berlin”: Diary as History or Fiction

- of the Self?” *Colloquia Germanica* 41(3): 193-210.
- Roesen, Tine. 2018. “Zwischen den Stühlen: Dokument und Fiktion bei Svetlana Aleksievic.” *Osteuropa* 68(1-2): 99-108.
- Sander, Helke & Johr, Barbara(hg.). 1992. *BeFreier und Befreite: Krieg, Vergewaltigungen, Kinder*. München: Verlag Antje Kunstmann.
- Stockdale, Melissa K. 2004. ““My Death for the Motherland Is Happiness”: Women, Patriotism, and Soldiering in Russia’s Great War, 1914-1917.”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109(1): 78-116.
- Daily Mail Reporter. 2011. “Wife of ex-German chancellor Helmut Kohl ‘raped at the age of 12 by Russian soldiers’.” *Daily Mail* (2011.6.18.). <https://www.dailymail.co.uk/news/article-2005190/Wife-ex-German-chancellor-Helmut-Kohl-raped-age-12-Russian-soldiers.html>(최종검색일: 2019/11/1).
- Wild, Chris. 2015. “1945 Elizabeth in the army: When the Queen was a truck mechanic.” <https://mashable.com/2015/04/22/queen-elizabeth-army> (최종검색일: 2019/11/5).
- Wiltz, Teresa. 2005. “Torture’s Tortured Cultural Roots.” *Washington Post* (2005.5.3.). <https://www.washingtonpost.com/archive/lifestyle/2005/05/03/tortures-tortured-cultural-roots/126d610e-603d-46cb-8243-97e426c50680/> (최종검색일: 2019/11/25).

Abstract

Experiences and Memories of Soviet Women Soldiers of the Second World War as Described in Svetlana Alexievich's Book of Witness

Hahn Jeong-sook*

Focusing on Svetlana Alexievich's oral history book of witness *У ВОЙНЫ НЕ ЖЕНСКОЕ ЛИЦО* (The Unwomanly Face of War) this article considers war experiences and memories of Soviet women warriors of the Second World War. Alexievich interviewed with women veterans and rearranged their words in the form of monologue in *The Unwomanly Face of War*. Young Soviet women participated in the war in order to defend their fatherland against the Nazi aggressors. But they were full of fantasy and did not have any knowledge of or information on war and military. The Stalin government allowed them to serve in the army but it did not pay them any attention and care in respect of accommodation, military uniform and even particular phenomenon related to menstruation. While women soldiers, convinced of righteousness of the defence war, fought courageously they at the same time gave efforts not to lose female sensibility. They were more warm-hearted and humane than male soldiers and showed mercy even towards enemy soldiers or citizens of a belligerent country. Despite all their contributions they did not receive social and political recognition or rewards after the end of the war. They were subjected to cold treatment and forced to silence because of their being women. Their memories had been buried for a long time and began to revive only slowly. The face of war is not only unwomanly but inhumane at all.

Key Words: war and women, women soldiers, oral history, the Second World War, Soviet Union

논문투고일: 2023. 10. 31.

논문심사일: 2023. 11. 16.

게재확정일: 2023. 11. 23.

* Emeritus Professor, Department of Western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liohan@snu.ac.kr